

# 노무사 2023년 경제학 기출문제해설

101.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기업의 최적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 ② 개별기업은 장기에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하며 정상이윤만을 얻게 된다.
- ③ 개별기업이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이유는 고정비용이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에서 총잉여인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 ⑤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비용불변산업에서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난이도 : ★★★

정답 ⑤

⑤ (X)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비용불변산업에서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선이다.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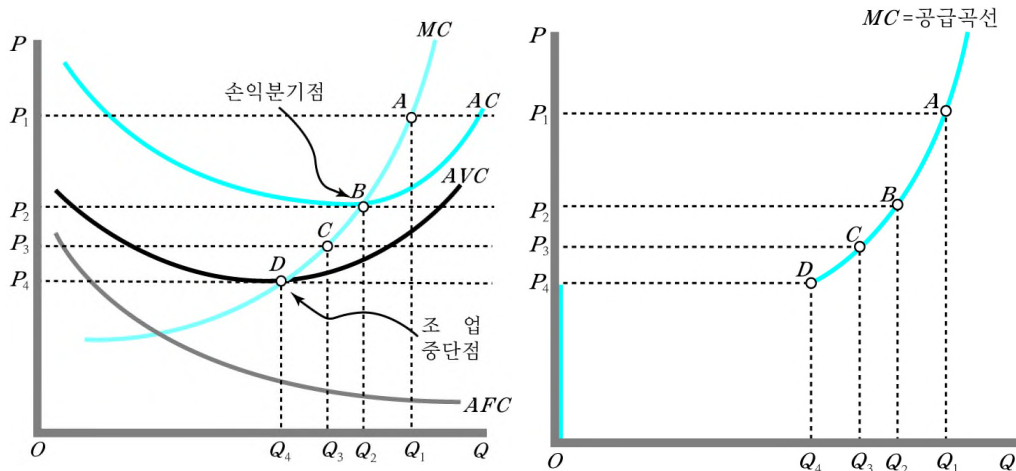
1.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① 완전경쟁기업은  $P = MC$  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가격	AC과 비교	이윤	생산량	비고
① $P_1$	$P > AC$	초과이윤	A점에서 $Q_1$	
② $P_2$	$P = AC$	초과이윤이 0	B점에서 $Q_2$	■ 손익분기점 → AC극소점 (정상이윤)
③ $P_3$	$AVC < P < AC$	손실이 발생	C점에서 $Q_3$	■ 가변비용은 회수 → 생산은 계속
④ $P_4$	$AVC = P < AC$	손실이 발생		■ 생산(조업)중단점 → AVC 극소점

② 이상에서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D점(AVC 극소점)을 상회하는 MC곡선이 도출된다.

■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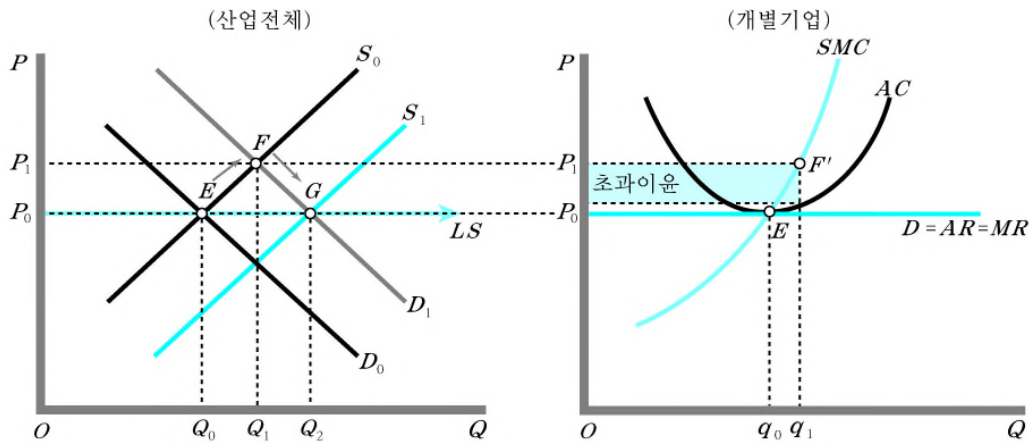
◆ 특히  $P = P_3$  일 때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생산을 계속하는 이유는 가변비용은 모두 회수하고 고정비용의 일부도 벌어들이지만 생산을 중단하면 고정비용 모두를 손해 보기 때문이다.

## 2. 장기균형 상태에서의 생산량과 이윤

완전경쟁기업은 장기균형상태에서는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의 최소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 생산이 이루어진다. 정상이윤만 획득하게 된다.

## 3.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 ■ 장기공급곡선(비용불변산업)



- ➔ 수요증가 → 가격상승 → 초과이윤 발생 → 신규기업이 진입 → 생산량의 증가로 공급의 증가  
 → 공급곡선이 우측이동 → 수평선의 장기공급곡선 도출  
 · E점의 기업 수(=F점의 기업수)보다 G점의 기업수가 증가한다.

102. 독점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4L, K])^{\frac{1}{2}}$  이고, 노동(L)의 가격은 16, 자본(K)의 가격은 40이다. 시장수요곡선이  $Q=200-0.5P$ 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Q)과 가격(P)은? (단, 고정비용은 0이다.)

- ① Q: 20, P: 360      ② Q: 30, P: 340      ③ Q: 40, P: 320  
 ④ Q: 50, P: 300      ⑤ Q: 60, P: 280

난이도 : ★★★★★

정답 ①

생산함수는  $Q = (\min[4L, K])^{\frac{1}{2}}$ 의 산출량 극대조건은  $4L = K$ 이므로

$$\text{총비용: } TC = wL + rK = 16L + 4K = 16L + 16L = 32L \quad \text{----- ㉠}$$

$$\text{이 때 생산량은 } Q = (\min[4L, K])^{\frac{1}{2}} = \sqrt{4L} \quad \therefore Q^2 = 4L \quad \text{----- ㉡}$$

$$\text{㉠과 ㉡에서 } TC = 8Q^2 \quad \therefore MC = 16Q$$

$$\text{시장수요곡선이 } Q=200-0.5P \text{에서 } P = 400 - 2Q \text{이므로 } MR = 400 - 4Q$$

$$\text{이윤극대화조건 } MR = MC \text{이므로 } 400 - 4Q = 16Q \quad \therefore Q = 20, P = 360$$

10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 ㄱ.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부담은 커진다.  
 ㄴ. 경쟁시장에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이다.  
 ㄷ.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일 때 극대화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난이도 : ★★

정답 ③

- ㄱ. (O)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부담은 커진다.  
 ㄴ. (O) 경쟁시장에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직면한 수요곡선은 수평선이어서 완전탄력적이다.  
 ㄷ. (X)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가격이 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므로 0이 된다.

**참 고** 수요 · 공급의 가격탄력도와 조세의 귀착

- ①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부담이 크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수평)이거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수직)이면 조세는 모두 생산자에 귀착된다.  
 →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수록 소비자부담이 줄어든다.  
 ② 수요가 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탄력적이면 소비자부담이 크다.  
 또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수직)이거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수평)이면 조세는 모두 소비자에 귀착된다.  
 → 공급곡선이 탄력적일 수록 생산자부담이 줄어든다.

104. 생산함수  $Q = A(aL^p + bK^p)^{v/p}$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 > 0$ ,  $a > 0$ ,  $b > 0$ ,  $p < 1$ ,  $p \neq 0$ ,  $v > 0$  이고  $A$ ,  $a$ ,  $b$ ,  $p$ ,  $v$ 는 모두 상수이며,  $L$ 은 노동,  $K$ 는 자본이다.)

- ㄱ.  $A$ 가 클수록 한계기술대체율( $MRTS_{LK}$ )이 커진다.  
 ㄴ.  $v$ 가 1보다 크면 규모의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ㄷ.  $p$ 가 클수록 대체탄력성이 크고 등량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ㄹ.  $a$ 가 클수록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난이도 : ★★★★★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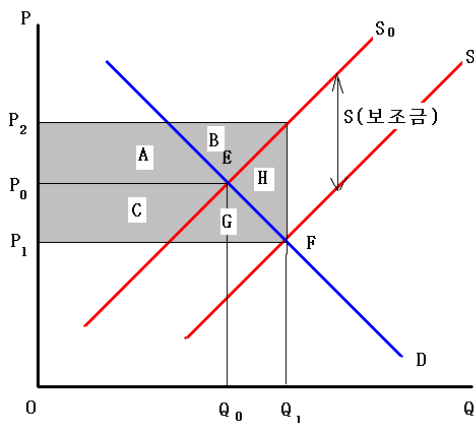
- 생산함수  $Q = A(aL^p + bK^p)^{v/p}$ 은 CES(대체탄력성이 일정)생산함수의 표준형으로 이 때, 대체탄력성은  $\sigma = \frac{1}{1-p}$ 의 관계를 갖는다.  
 ㄷ. (O) 따라서  $p$ 값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클수록 대체탄력성이 커지므로 등량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ㄴ. (O)  $v$ 값이 1이면 1차동차생산함수이므로  $v$ 값이 1보다 크면 규모의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한편,  $a$ 가 클수록 노동절약적 집약형 기술진보이다.

105. 원룸 임대시장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각각  $Q_s=20+4P$ ,  $Q_d=420-6P$ 이다. 정부는 원룸의 임대료(p)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상한을 30으로 규정하였다. 원룸부족현상을 피하기 위해 수요량 ( $Q_d$ )에 따라 공급량( $Q_s$ )이 일치되도록 할 경우, 정부가 원룸당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 ① 10                      ② 15                      ③ 20                      ④ 25                      ⑤ 30

난이도 : ★★★★★

정답 ④



균형수량과 가격을 구하면  $20+4P=420-6P \Rightarrow 10P=400, \therefore P=40, Q=180$   
상한을 30으로 하면 수요곡선에서 수요량은 240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s만큼 지원한다면 이 때 공급곡선은 하방으로 s만큼 이동하므로  $Q_s=20+4(P+s)$ 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그림에서 F점인  $Q=240, P=30$ 을 지나므로  $240=20+4(30+s)$ 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s=25$ 이다.

106.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甲)의 효용함수는  $U=C \times L$ , 시간 당 임금은 2만 원이고 주당 40시간을 일하거나 여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한 명당 주당 32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근로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때 갑(甲)의 주당 근로시간은? (단, C는 상품에 지출하는 금액, L은 여가시간이다.)

- ① 10                      ② 24                      ③ 30                      ④ 36                      ⑤ 40

난이도 : ★★★★★

정답 ①?

주당 40시간을 일하거나 여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시간( $N$ ) =  $40 - L$ ,

C는 상품에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이므로

$$C = 0.8(2N + 32) = 1.6N + 25.6 = 1.6(40 - L) + 25.6 = -1.6L + 89.6 \quad \text{----- ㉠}$$

$$\text{한편, 효용함수 } U = C \times L \text{의 } MRS_{LC} = \frac{MU_L}{MU_C} = \frac{C}{L}$$

효용극대화 조건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여가의 가격  $w$ (임금)와 같을 때 성립하므로

$$MRS_{LC} = \frac{MU_L}{MU_C} = \frac{C}{L} = 1.6 \Rightarrow C = 1.6L \quad \text{----- ㉡}$$

㉡을 ㉠에 대입하면

$$C = -1.6L + 89.6 = 1.6L \Rightarrow 3.2L = 89.6 \therefore L = 28, N = 40 - 28 = 12$$

문제가 잘못 된는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고 효용극대화와 노동공급곡선

(1) 가정

하루 중 여가와 노동시간의 합은 12시간, 여가시간 =  $L$ , 이 때 노동시간( $N$ ) =  $12 - L$  이다.

(2) 효용극대화 모형

$$\begin{aligned} \max : & \quad U = U(L, M) \\ \text{s. t. (제약조건)} : & \quad M = wN = w(12 - L) \quad \text{즉, } wL + M = 12w \end{aligned}$$

상기의 식은 여가의 가격이  $w$ 이고 기타 재화를 소비하기위한 소득의 가격이 1일 때 시간이 12시간 주어진 상태에서 효용 극대화를 구하는 모형이다.

(3) 효용극대화 조건

$$MRS_{LM} = w$$

즉,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여가의 가격  $w$ (임금)과 같을 때 성립한다.

107. 갑(甲)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시 3600, 화재발생 시 1600이고, 건물의 화재 발생확률은 0.5이다. 갑(甲)의 효용함수가  $U(W) = \sqrt{W}$ 일 때, 건물의 (ㄱ) 기대가치와 (ㄴ) 기대효용은? (단,  $W$ 는 건물의 가치이다.)

- ① ㄱ: 1800, ㄴ: 40                      ② ㄱ: 2400, ㄴ: 40                      ③ ㄱ: 2400, ㄴ: 50  
④ ㄱ: 2600, ㄴ: 40                      ⑤ ㄱ: 2600, ㄴ: 50

난이도 : ★

정답 ⑤

기대소득 :  $E(w) = p \cdot w_1 + (1 - p)w_2 = 0.5 \times 3.600 + 0.5 \times 1.600 = 2,600$

기대효용 :  $E(U) = p \cdot U(w_1) + (1 - p)U(w_2) = 0.5 \times \sqrt{3,600} + 0.5 \sqrt{1,600} = 0.5 \times 60 + 0.5 \times 40 = 50$

참 고

(1) 기대소득(기대치) [expected income]

기대소득(기대치)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금액(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text{기대소득 : } E(w) = p \cdot w_1 + (1 - p)w_2$$

(소득  $w_1$ 을 얻을 확률이  $p$ , 소득  $w_2$ 을 얻을 확률이  $1 - p$ )

(2)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기대효용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용의 기대치를 의미한다.

$$\text{기대효용 : } E(U) = p \cdot U(w_1) + (1 - p)U(w_2)$$

108. 갑(甲)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AK^{0.5}L^{0.5}$  일 때,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0$ ,  $K$ 는 자본,  $L$ 는 노동,  $MP_K$ 는 자본의 한계생산,  $MP_L$ 는 노동의 한계생산,  $r$ 은 자본가격,  $w$ 는 노동가격이다.)

- ① 비용극소화가 되려면 한계기술대체율이 생산요소가격의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
- ②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 ③  $MP_{K/r} > MP_{L/w}$  일 때,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여야 한다.
- ④  $A$ 가 커지면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 ⑤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에서 비용극소화가 이루어진다.

난이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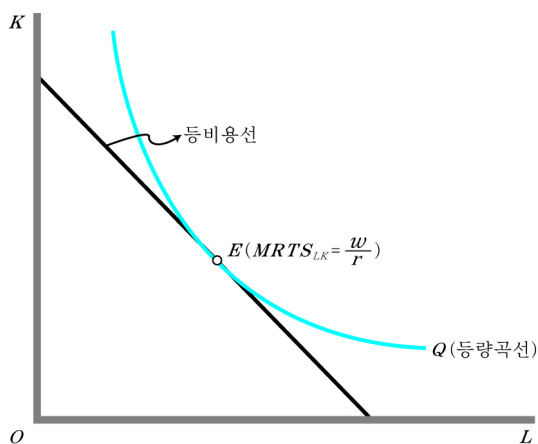
정답 ③

③ (X)  $MP_{K/r} > MP_{L/w}$  일 때, 자본 1원의 한계생산성이 크므로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줄여야 한다.

**참 고** 생산자 균형점(한계생산물 균등의 법칙)

산출량 극대화(최대산출량 원칙) 또는 비용극소화(최소비용의 원칙)는 같은 원리로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점을 생산자균형점이라 한다.

#### ■ 생산자 균형점(1)



- ① 생산자 균형점(E)점에서 등비용선의 기울기=한계기술대체율이 성립하며 이는 비용극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요소의 구입에 지출된 1원의 한계생산물이 같도록 투입하여야 하는 한계생산물 균등의 법칙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 ② 생산자 균형점은 산출량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점이므로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109.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 사이의 대체탄력성( $\delta$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r$ 은 자본가격,  $w$ 는 노동

가격,  $\delta = \frac{\Delta(\frac{K}{L})}{(\frac{K}{L})} / \frac{\Delta(\frac{w}{r})}{(\frac{w}{r})}$ 이다.)

- ㄱ.  $\delta=0.5$ 인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라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더 커진다.  
 ㄴ.  $\delta=1$ 인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해도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ㄷ.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난이도 : ★★★★★

정답 ②

- ㄱ. (O) (참고)의 표에서  $\delta = 0.5$ 인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라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더 커진다.  
 ㄴ. (O) (참고)의 표에서  $\delta = 1$ 인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해도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ㄷ. (X)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1이다.  
 한편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

참 고

1.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代替彈性)

- ① 대체탄력성이란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사이의 대체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sigma = \frac{\text{요소집약도의 변화율}}{\text{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율}} = \frac{\Delta(\frac{K}{L})/\frac{K}{L}}{\Delta MRTS/MRTS}$$

- ② 동일한 등량곡선상에서 한계기술대체율(MRTS)이 1% 변할 때 요소집약도( $\frac{K}{L}$ )의 변화율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 ③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동일한 MRTS의 변화에도 요소집약도가 작게 변하므로 등량곡선이 급경사가 된다.(즉,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직선에 가까워진다.)

2. 대체탄력성과 상대적소득분배율

- ① 대체탄력성( $\sigma$ )이 2이면 요소상대가격( $\frac{w}{r}$ )이 1% 하락 할 때 요소집약도( $\frac{K}{L}$ )은 2%감소하므로 요소집약도의 역수인(노동 비율)  $\frac{L}{K}$ 는 2% 증가한다.  
 ②  $\frac{\text{노동소득}}{\text{자본소득}} = \frac{wL}{rK} = \frac{w}{r} \times \frac{L}{K} = (1\% \text{ 하락}) \times (2\% \text{ 증가})$   
 ③ 즉, 대체탄력성( $\sigma$ ) > 1 이면 임금하락률(노동증가율)이므로 노동소득의 상대적 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본소득의 상대적 분배율은 감소한다.

❖ 대체탄력성과 상대적소득분배율(임금이 상승 할 때)

대체 탄력성 ( $\sigma$ )	임금상승률과 노동증가율 비교	노동소득의 상대적 분배율	자본소득의 상대적 분배율
$\sigma > 1$	임금상승률 < 노동감소율	감소	증가
$\sigma = 1$	임금상승률 = 노동감소율	불변	불변
$\sigma < 1$	임금상승률 > 노동감소율	증가	감소

◆ 임금이 하락할 때는 상대적 분배율 위의 표와 반대로 도출된다.

110. 쿠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P = -2Q + 700$ 이고,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10으로 동일하다. 내쉬(Nash)균형에서 두 기업 생산량의 합은? (단, P는 상품가격, Q는 총생산량이다.)

- ① 15                      ② 20                      ③ 25                      ④ 30                      ⑤ 35

난이도 : ★★★

정답 ② (정식해는 어려워서 간편해를 적용)

꾸르노(Cournot) 복점은 완전경쟁 생산량의  $\frac{2}{3}$  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MC$ 이므로  $-2Q + 70 = 10 \Rightarrow Q=30$

따라서 완전경쟁 생산량의  $\frac{2}{3}$  는 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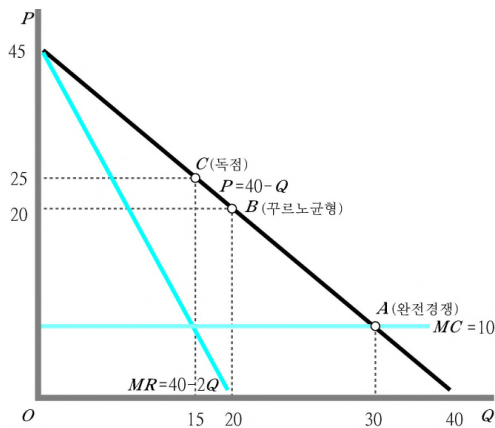
#### 참 고 꾸르노모형 [Cournot Composition]

##### (1) 가정

- ① 공급자가 둘인 복점(모든 면에서 동일)
- ② 각 기업은 상대방의 산출량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두 기업은 모두 추종자) → 산출량의 추측된 변화가 0이라 가정
- ③ 생산비용은 없으며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 ( $MC=0$ )

##### (2) 꾸르노균형과 다른 시장의 균형량의 비교

###### ■ 꾸르노모형



###### ➡ 다른 시장과의 비교

- ① 시장수요곡선이  $P = 40 - Q$ 이고  $MC = 10$  일 때  $MR = 40 - 2Q$  꾸르노균형에서의 산출량은 독점 ( $C$ 점 = 15)보다는 크지만 완전경쟁 ( $A$ 점)산출량( $=30$ )의  $\frac{2}{3}$  이다.
- ② 꾸르노균형( $B$ 점)항상  $30 \times \frac{2}{3} = 20$  이다.

111. 폐쇄경제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일 때, IS-LM모형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효과로 옳은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소득 불변                      ② 이자율 하락                      ③ LM곡선 우측 이동
- ④ 이자율 불변                      ⑤ 소득 감소

난이도 : ★

정답 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일 때 IS곡선이 수직선이다.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은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은 불변



112. 아래와 같이 주어진 폐쇄경제를 가정할 경우, (⌋) 균형국민소득과 (⌋) 균형이자율은? (단, Y는 GDP,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T는 조세, (M/P)<sup>d</sup>는 실질화폐수요, M은 통화량, P는 물가이다.)

* $Y = C + I + G$	* $C = 50 + 0.5(Y - T)$
* $I = 100 - 5r$	* $(M/P)^d = Y - 20r$
* $G = 100$	* $T = 100$
* $M = 400$	* $P = 4$

- ① ⌋: 200, ⌋: 5                      ② ⌋: 300, ⌋: 5                      ③ ⌋: 300 ⌋: 10  
 ④ ⌋: 400, ⌋: 15                      ⑤ ⌋: 400, ⌋: 20

난이도 : ★★

정답 ③

1) IS곡선을 도출하면

$$Y = C + I + G \text{에서}$$

$$Y = 50 + 0.5(Y - 100) + 100 - 5r + 100 \text{이므로 이 식을 정리하면}$$

$$5r = -0.5Y + 200 \Rightarrow r = -0.1Y + 40 \text{ ----- IS곡선}$$

2) LM곡선을 도출하면

$$\text{화폐수요} = \text{화폐공급} \left( \frac{M}{P} \right) \text{이므로}$$

$$Y - 20r = \frac{400}{4} = 100 \Rightarrow r = 0.05Y - 5 \text{ ----- LM곡선}$$

3) 균형을 구하면

$$-0.1Y + 40 = 0.05Y - 5 \Rightarrow 0.15Y = 45 \therefore Y = 300, r = 10$$

113. 변동환율제 하에서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멘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간 자본이 완전이동과 물가불변을 가정하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이다.)

⌋. IS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 자국통화가치는 하락한다.
⌋.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LM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난이도 : ★★

정답 ②

변동환율제 하에서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소득은 불변인 상태에서 국내이자율이 상승한다. 국내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자국통화가치는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야 하나 수입제한정책으로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가지 못하고 약간의 좌측이동으로 균형을 이룬다. 이 때, LM곡선은 수직선이므로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ㄱ. (O) IS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ㄴ. (X) 자국통화가치는 상승한다.  
 ㄷ. (O)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ㄹ. (X) 변동환율제도에서는 LM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114. 소비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케인즈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②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야간작업에 의한 일시적 소득증가보다 승진에 의한 소득증가가 더 큰 소비의 변화를 초래한다.  
 ③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연령계층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  
 ④ 확률보행가설은 소비자들이 장래소득에 관해 적응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한다.  
 ⑤ 케인즈는 평균소비성향이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난이도 : ★★★★★

정답 ④

확률보행 가설은 소비자들이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현재 상황 및 현재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예측을 하도록 가정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득의 변동성에 적응하며 소비 결정을 내린다. 확률보행 가설은 소비자들이 미래 소득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정보를 반영하여 기대를 적절하게 조정한다고 가정한다. 반면 적응적 기대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최근 기간의 경험에 따라 기대를 업데이트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소득과 관련된 예측을 하게 된다.

- ④ (X) 확률보행가설은 소비자들이 장래소득에 관해 적응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한다.

**참 고** 확률 보행 가설(Random Walk Hypothesis)

확률 보행 가설(Random Walk Hypothesis)은 주식 시장과 같은 금융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 변동이 무작위로 움직이며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과거의 가격 정보나 기타 시장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 보행 가설은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든 관련 정보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확률 보행 가설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의 움직임은 무작위이며, 과거의 움직임에 따라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
2. 미래 변동성은 과거의 변동성과 독립적이다.
3. 새로운 정보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어 미래의 가격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115. 통화함수  $\frac{M}{P} = 0.4\left(\frac{Y}{i^2}\right)$ 이다.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명목이자율(i)이 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Y는 균형소득,

M은 통화량, P는 물가이다.)

- ① 2                      ② 4                      ③ 5                      ④ 6                      ⑤ 8

난이도 : ★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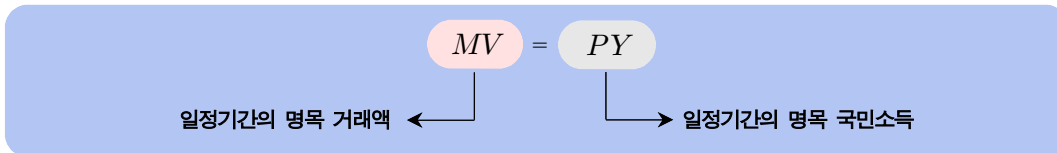
명목이자율(i)이 4이면  $\frac{M}{P} = 0.2Y \Rightarrow \frac{1}{0.2}M = PY$ 이므로 유통속도 :  $V = \frac{1}{0.2} = 5$

참 고

## 1. 일반적인 교환방정식

### 1) 교환방정식의 변형

일반적으로 교환방정식의 거래량(T)는 국민소득(Y)에 비례하므로



(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국민소득)

### 2) 교환방정식의 의미

위의 식에서 통화의 유통속도(V)는 사회적인 지불관습에 의해 일정하다고 보고 국민소득(Y) 또한 고전학파의 경우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에서 일정하다고 보므로 결과적으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이란 통화량(M)과 물가(P)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물가이론이라 볼 수 있다.

116.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Y는 총생산이다.)

- ㉠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성장률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
- ㉡ 총생산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  $MV = PY$ 가 성립한다.
- ㉣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 ㉤ 현재 통화증가율은 10%이고, 인플레이션율은 6%이다.

- ①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성립한다.
- ②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 ③ 명목 총생산성장률은 10%이다.
- ④ 총생산성장률은 4%이다.
- ⑤ 통화증가율을 6%로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이 4%로 인하되면 총생산은 감소한다.

난이도 : ★★

정답 ⑤

㉠과 ㉡에 의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② (O)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과 ㉣에 의해  $\frac{\Delta M}{M} + \frac{\Delta V}{V} = \frac{\Delta P}{P} + \frac{\Delta Y}{Y} \Rightarrow 10\% + 0\% = 6\% + \frac{\Delta Y}{Y}$ 이므로

③ (O) 명목 총생산성장률은  $\frac{\Delta P}{P} + \frac{\Delta Y}{Y} = 10\%$ 이다.

④ (O) 총생산성장률은 4%이다.

한편, 통화증가율을 6%로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이 4%로 인하되면 총생산은 2% 증가한다.

## 참 고 오쿤의 법칙

### 1. 오쿤의 법칙의 개요

미국의 경제학자 Okun은 미국경제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업률과 GDP갭 간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를 오쿤의 법칙이라 한다.

### 2. 오쿤의 법칙 내용

#### (1) 오쿤의 법칙

$$\frac{Y_P - Y}{Y_P} = \alpha(U - U_N)$$

(  $Y_P$  : 잠재 GDP,  $Y$  : 실제GDP,  $U_N$  : 자연실업률,  $U$  : 실업률,  $\alpha$  : 비례상수 )

#### (2) 오쿤의 법칙의 의미

- ① 오쿤의 법칙은 GDP갭( $Y_P - Y$ )와 실업률과의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 ② 산출량(실제GDP)증가는 GDP갭을 감소시키어 실업률이 하락한다. 이는 산출량( $Y$ )과 실업률과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총공급곡선과 필립스곡선과의 관계를 도출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 117.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닌 것은?

- ① 화폐 보유액을 줄이는데 따르는 비용
- ② 가격을 자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③ 경직적인 조세제도로 인한 세금 부담 비용
- ④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wealth)의 재분배
- ⑤ 상대가격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자원배분 왜곡

난이도 : ★★

정답 ⑤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물가 상승과 관련한 부담이나 비효율적인 활동, 기대하지 못한 변동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비용이 인플레이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 및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가격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자원배분 왜곡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닌 요소로 볼 수 있다.

## 참 고 인플레이션의 영향

### 1.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 $\pi_t > \pi_t^e$ )

#### (1) 부와 소득의 재분배

- ① 실제실질이자율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는 불리하고 채무자는 유리하다.
- ② 일반적으로 가게는 채권자이고 정부와 기업은 채무자이므로 가게는 불리해지고 정부와 기업은 유리해진다.
- ③ 봉급생활자와 연금생활자는 불리해진다.

#### (2) 조세부담증가 : 각종제도(조세)가 변하지 않는 경우

- ①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의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봉급생활자는 불리하다.
- ② 이자 소득세는 비례세일지라도 예금자(채권자)가 불리하다.

### (3)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장기적 거래를 회피하고 단기적 거래만 이루어져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 2.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pi_t = \pi_t^e$ )

### (1) 효율성 저하

- ① 실물자산의 선호로 화폐경제의 효율성을 저하한다.
- ② 물가변화에 따른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
- ③ 현금거래 회수의 증가로 거래비용(shoe-leather cost:구두창비용)이 증가한다.

### (2) 경제성장이 저하

- 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물자산의 선호가 증가하여 저축이 감소한다. 저축의 감소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감소시킨다.
- ②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기업은 장기차입이 어려워져 설비투자가 감소한다.

### (3) 국제수지악화

국내물가의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감소하므로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118. 가격이 신축적인 폐쇄경제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각각 10 증가시킬 때, 국민소득 증가분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L은 노동, W는 임금,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L^S$ 는 노동공급,  $L^D$ 는 노동수요이다.)

* $C = 10 + 0.8(Y - T)$	* $I = 10 - 200r$	* $G = 50$
* $T = 50$	* $MV = PY$	* $V = 1$
* $M = 100$	* $Y = L$	
* $L^S = 50 + 10(W/P)$	* $L^D = 150 - 10\left(\frac{W}{P}\right)$	* $L = L^S = L^D$

- ① 0                      ② 10                      ③ 50                      ④ 100                      ⑤ 200

난이도 : ★★★★★

정답 ① (정식해는 어려워서 간편해를 적용)

가격이 신축적인 폐쇄경제에서 균형재정 승수에 대한 물음이다.

즉,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인  $MV = PY$ 이 성립하므로 고전학파는 리카르도 등가정리에 의해 국민소득 증가효과는 전혀없다.

119.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한다.
ㄴ.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의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 of capital)은 감소한다.
ㄷ.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자본의 황금률 수준은 증가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난이도 : ★★★★★

정답 ②

ㄱ. (O)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한다.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률이 증가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제자리에서의 자본 누적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1인당 자본량

도 증가한다.

ㄴ. (O)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의 황금률 수준은 감소한다.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이 더 빨리 상각되어 자본의 황금률 수준이 감소한다.

ㄷ. (X)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자본의 황금률 수준은 증가한다.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경제 전체의 자본량을 더 많은 인구에게 분배하게 되어, 1인당 자본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의 황금률 수준은 감소한다.

## 참 고 경제성장의 황금률(golden rule , 黄金律)

### 1. 개념

경제성장의 황금률이란 장기적으로 1인당 소비가 극대가 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 2. 황금률의 도출

#### (1) 1인당 소비함수

① 1인당 소득이  $y=f(k)$  이고 1인당 저축은  $sf(k)$ 이므로 1인당 소비(C)는

1인당 소비(C) = 1인당 소득-1인당 저축 =  $f(k) - sf(k)$  이다.

② 한편 솔로우 균형에서  $sf(k) = (n+\delta)k$  이 성립하므로

1인당 소비(C) =  $f(k) - (n+\delta)k$ (필요 투자액) 로 나타내진다.

#### (2) 1인당 소비의 극대값 조건

① 1인당 소비의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소비 함수를  $k$ 에 대하여 미분한 값을 0이라 한다.

②  $\frac{dC}{dk} = f'(k) - (n+\delta) = 0$  즉, 경제성장의 황금률 조건은 다음과 같다.

$$f'(k) = n + \delta$$

자본의 한계생산물 = 인구 증가율 + 감가상각률

120.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갑(甲)의 효용함수  $U = Y + 3L$ , 예산선  $Y = w(24 - L)$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U$ 는 효용,  $Y$ 는 소득,  $L$ 은 여가,  $w$ 는 임금률이다.)

- ①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 ② 임금률이 1이면 효용은 55이다.
- ③ 임금률이 1에서 2로 상승하면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 ④ 임금률이 4에서 5로 상승하면 여가시간은 불변이다.
- ⑤ 임금률과 무관하게 예산선은 고정된다.

난이도 : ★★★★★

정답 ④

효용함수  $U = Y + 3L$ 의  $MRS_{LY} = \frac{a}{b} = \frac{3}{1} = 3$ 이다. 완전대체재에서 X재를 여가(L)로 Y재를 소득(Y)로 해석한다.

- ① (X) 한계대체율은 일정한다.
- ② (X) 임금률( $w$ )이 1이면  $MRS_{LY} = 3 > 1$ 이므로 24시간 모두를 X재인 여가를 소비하므로  $L=24$ 이다.  
따라서  $U = 0 + 72$  효용은 72이다.
- ③ (X) 임금률이 1에서 2로 상승하여도  $MRS_{LY} = 3 > 2$ 이므로 24시간 모두를 X재인 여가를 소비하므로  $L=24$ 이다.

- ④ (O) 임금이 4이면  $MRS_{LY} = 3 < 4$ 이면 24시간 모두를 Y재인 소득을 선택하므로  $L=0$ 이다.  
따라서 임금이 4에서 5로 상승하면 여가시간은 0으로 불변이다.
- ⑤ (X) 임금이 예산선의 기울기이므로 예산선은 고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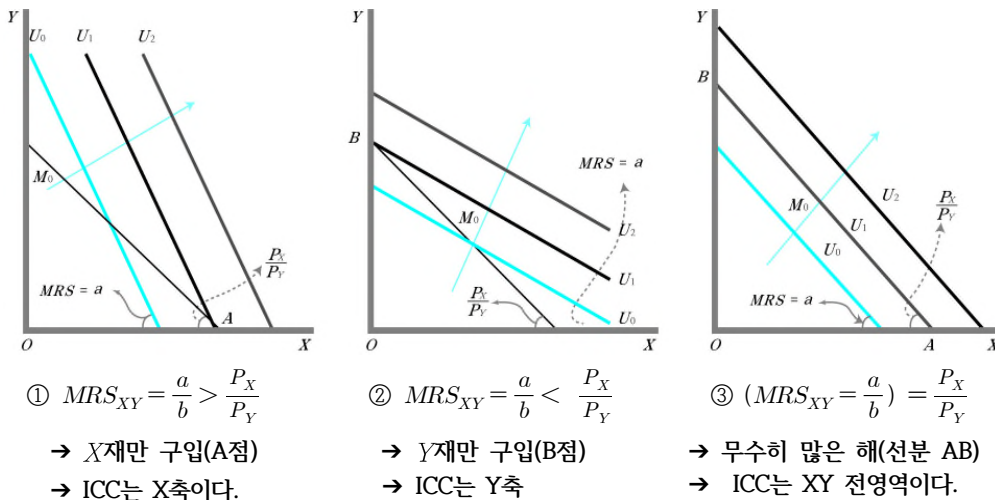
#### 참 고

### 1. 완전대체재 [ $U(X, Y) = aX + bY$ ] 인 경우 : $MRS_{XY} = \frac{a}{b}$ (일정)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직선이므로 원점에서 볼록한 무차별곡선과 같이 일반적으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점이 구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석해(한재화만 구입)가 나오거나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기도 한다.

#### ■ 완전대체재의 소비자균형



### 2. 효용극대화와 노동공급곡선

#### (1) 가정

하루 중 여가와 노동시간의 합은 12시간, 여가시간 =  $L$ , 이 때 노동시간( $N$ ) =  $12 - L$  이다.

#### (2) 효용극대화 모형

$$\begin{aligned} \max : & \quad U = U(L, M) \\ \text{s. t(제약조건)} : & \quad M = wN = w(12 - L) \quad \text{즉, } wL + M = 12w \end{aligned}$$

상기의 식은 여가의 가격이  $w$ 이고 기타 재화를 소비하기위한 소득의 가격이 1일 때 시간이 12시간 주어진 상태에서 효용극대화를 구하는 모형이다.

#### (3) 효용극대화 조건

$$MRS_{LM} = w$$

즉,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여가의 가격  $w$ (임금)과 같을 때 성립한다.

121. A국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0명이다. 실업률이 10%,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일 때, 취업자수는?

- ① 54명      ② 100명      ③ 108명      ④ 120명      ⑤ 180명

난이도 : ★

정답 ③

주어진 조건을 (참고)의 표에 적용하면

15세 이상의 인구(200명)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120명)	
	취업자(108명)	실업자(12명)

**참 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15세 이상의 인구(A)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취업자(D)	실업자(E)

**1.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의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B}{A} \times 100 = \frac{B}{B+C} \times 100(\%)$$

**2. 실업자와 실업률**

**(1) 실업자(unemployed person, 失業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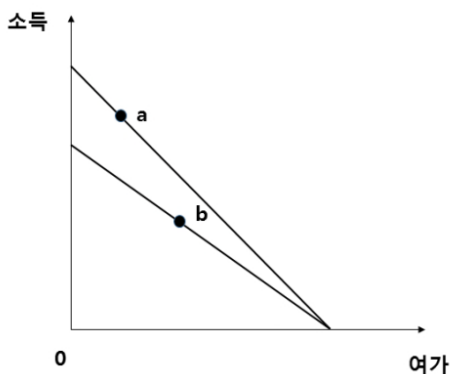
실업자란 조사기간 중 1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2) 실업률(unemployment rate, 失業率)**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text{실업자수}(E)}{\text{취업자수}(D) + \text{실업자수}(E)} \times 100$$

122.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甲)은 임금이 10일 때 a를 선택하였고, 이후 임금이 8로 하락하자 b를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 ① 가격효과로 소득은 증가한다.
- ② 소득효과로 여가시간이 증가한다.
- ③ 가격효과로 노동시간은 증가한다.
- ④ 대체효과로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 ⑤ 효용수준 변화는 알 수 없다.



난이도 : ★★★

정답 ④

(참고)에서 2. 임금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이므로

- ① (X) 그림에서 여가가 증가하므로 가격효과로 소득은 감소한다.
- ② (X) 소득효과로 여가시간이 감소한다.
- ③ (X) 그림에서 여가가 증가하므로 가격효과로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 ④ (O) 대체효과로 여가소비 증가하므로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 ⑤ (X) 효용수준 변화는 감소한다.

참 고

#### 1.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① 대체효과 : 임금상승 → 여가의 상대가격 상승 → 여가소비 감소 → 노동공급(시간) 증가
- ② 소득효과 : 임금상승 → 실질소득 상승 → 여가(정상재)소비 증가 → 노동공급(시간) 감소

#### 2. 임금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① 대체효과 : 임금하락 → 여가의 상대가격 하락 → 여가소비 증가 → 노동공급(시간) 감소
- ② 소득효과 : 임금하락 → 실질소득 하락 → 여가(정상재)소비 감소 → 노동공급(시간) 증가

123. A국의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2%,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8%일 때,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은?

- ① 10%      ② 12%      ③ 16%      ④ 20%      ⑤ 25%

난이도 : ★★

정답 ④

$$\text{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 = \frac{\text{실직률}}{\text{실질률} + \text{구직률}} = \frac{2}{2+8}(\%) = 20\%$$

참 고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자연실업률)의 도출

1.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취업자(E)중 실직률(job separation rate)을  $s$ 라 하고 실업자(U) 중에서 구직률(job finding rate)을  $f$ 라 한다.
2. 이 때 새로 발생하는 실업자수는  $sE$ 이고 새로 취업한 사람의 수는  $fU$ 이다. 따라서  $sE = fU$   
 즉,  $sE - fU = 0$ 이면 새로이 취업한 사람 수와 새로이 실직한 사람의 수가 동일하여져 노동시장이 동태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이 때 결정되는 실업률이 바로 자연실업률인 것이다.

$$\text{자연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취업자수} + \text{실업자수}} = \frac{U}{U+E} = \frac{U}{U+\frac{f}{s}U} = \frac{s}{s+f} = \frac{\text{실직률}}{\text{실질률} + \text{구직률}}$$

#### 124.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임금이 단기에 노동수요 충격과 노동공급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불완전한 계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③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근로자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보다 안정적 임금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④ 암묵적 계약은 자율적 강제성보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 ⑤ 암묵적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원칙(the doctrine of employment at will)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난이도 : ★★★★★

#### 정답 ④

암묵적 계약이론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을 설명합니다.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계약이 법적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 강제성에 의해서도 조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규제 받지 않더라도 양자간의 상호 이해나 합의에 의해 작용할 수 있다.

#### 참 고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은 경제학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이다. 암묵적 계약이란, 고용 주체와 근로자 사이에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은 신뢰와 충성도에 기반한 노동시장에서의 상호 혜택을 극대화하며, 사람들이 고용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암묵적 계약이론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일의 질과 생산성:** 암묵적 계약이론은 사람들이 높은 품질의 작업과 약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근로자가 기업에 충성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갖는 대신,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력과 투자를 인정하고 보상한다.
  - 2. **리스크 공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암묵적 계약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리스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경제 침체기에는 회사가 고용 축소를 최소화하고 임금을 유지하여 리스크를 완화하며, 경기 호황기에는 근로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 3. **사회적 규범과 기대:** 암묵적 계약이론은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불완전한 시장 정보를 보완하며, 일자리안정과 높은 생산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이 수준에서 사회적 규범이 및 기대는 개인의 행동을 안내하고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4. **포용적 조직 문화:** 암묵적 계약은 포용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며, 장기적인 근로자와 직원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문화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대시키며,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매력도를 높인다.
- 암묵적 계약이론은 노동경제학, 인적 자원관리 및 조직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간의 유익한 관계를 꾀할 수 있다.

#### 125. 일자리 탐색 모형(job search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자리 특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 ② 일자리 탐색 모형은 채용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 ③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근로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임금이다.
- ④ 유보임금이 증가하면 예상실업기간은 감소한다.
- ⑤ 근로자는 탐색과정에서 희망하는 최고의 임금을 받게 된다.

난이도 : ★★★

정답 ④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개인이 근로를 시작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임금입니다. 일자리 탐색 모형에서 근로자는 이 유보임금 이상의 임금이 제시되는 상황에만 근로를 시작하도록 결정합니다.

**참 고** 일자리 탐색 모형(Job search model)

일자리 탐색 모형(Job search model)은 경제학에서 일자리 구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모형이다. 이 모형은 구직자와 기업(고용주)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일자리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점을 찾고자 한다.

일자리 탐색 모형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검색 이론** :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개념은 표준 검색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구직자들이 무작위로 구인 광고를 찾아보는 상황을 가정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임금 분포에 따라 특정 임금 행보를 결정한다.
2. **일자리 수락의 기준** : 구직자들은 마주한 일자리 기회에 대해 그 임금이 기대수준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기대 수준 이상의 임금이 주어진다면, 구직자는 그 일자리를 받아들인다.
3. **비용-효익 분석** : 구직자들은 일자리 수락 결정을 내릴 때 비용-효익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희생하고 대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4. **구직기간** : 일자리 탐색 기간은 구직자의 기대 수준과 경제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경기 호황기에는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속성** : 어떤 일자리는 구직자의 개인적인 역량, 능력, 경험이나 선호도에 맞춰져 있고, 어떤 일자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구직자는 스스로와 일자리의 속성을 맞춰 가면서 탐색해야 한다.
6. **구직자 문턱** : 어떤 직책들은 구직자가 개인적 능력, 역량, 경험 등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입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직책을 찾고자 한다면, 적절한 능력과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일자리 탐색 모형은 경제학, 인력 자원 및 기업 이론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